



# 아이티 지진

## 대 참사를 통해 알아보는 지진 안전 수칙

2010년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 최빈국인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대통령궁을 비롯 해 학교, 병원 등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 전세계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가 적어도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충격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타이완, 터키,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이란,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대책과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삼국사기,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왕조실록 등의 역사기록을 토대로 밝혀진 지진발생 횟수는 서기 27년부터 현재까지 1,900회에 이르며 1643년 7월 24일 울진-삼척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9)이 최대 규모이며 진도 7 이상의 지진은 45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결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진계가 설치된(1905년) 이후 가장 큰 지진은 1936년 7월 4일 규모 5.1의 지리산 쌍계사 지진으로 4명의 부상자와 113동의 가옥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외에 규모가 큰 유감지진으로는 속리산지진, 사리원지진, 홍성지진 등(규모 4.5~5.0)이 있다. 지진 발생은 본격적인 지진계측이 이루어진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총 678회에 이르며 연평균 25회 발생하는 등, 현대식 지진관측망의 확대와 함께 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서울을 강타할 경우 피해정도를 예측한 결과 서울 남서쪽 10km 부근에서 진도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67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진에 대한 지식과 대피요령 등에 대한 범 국민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진재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고 관계자들은 꼬집는다.

우선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책상이나 침대 등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 가구의 다리를 꼭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끄고 가스밸브도 잠가야 한다. 거실이나 방보다는 벽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작은 화장실이나 목욕탕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고, 창문이나 발코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노후하거나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벽돌로 지어진 집이라면 집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밖으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며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좁은 길이나 담 근처는 위험하므로 피하고, 넘어지기 쉬운 벽이나 문기둥, 자판기 등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극장 등에 머물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좌석에서 머리를 감싸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낫다. 지하 시설물은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정전이나 침수 피해 등에 대처해야 한다. 넓은 운동장은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다.

산악지역에서 지진을 만나면 산사태 위험이 없는 평지로 재빨리 이동해야 한다. 해안지역에서는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안전하다.

지하철 탑승중이라면 고정된 물체를 꼭 잡고 있어야 하며, 무작정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내방송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또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재난당국의 상황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등 후속 대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지진 발생 시 대처법

(1)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2) 지진 때문에 가스레인지나 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은 물론 이웃사람들과도 협력해서 초기 소화를 해야 합니다.

(3) 집 밖은 위험이 가득하니, 먼저 안전을 확인하며 집안에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진 발생 때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5) 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6) 손이나 가방 등 드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8) 지진이나 화재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9)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진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제대로 운전을 못 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킵니다.

(10) 대피하는 사람이나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 둡니다.

(11)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금지 됩니다.

자동차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12)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발생 때에 차 안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 자동차 키를 꽂아 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하도록 합니다.

(13)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의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14) 해안에서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역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 등의 정보에 따라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